

가정-학교 연계를 통한 유아 및 초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A Study on Effective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Character Education
Through Family-School Partnership
: Based on Parents' Satisfaction and Needs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장 영 은**

부 교수 박 정 운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Lee, Seung-Mie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Eun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parents' understanding and needs for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and during elementary education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e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14 mothers in Seoul, Korea. The mothers were unclear about the defini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nd about their role in teaching proper value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ir children's development. Most mothers with preschoolers were satisfied with the character education their children were receiving, whereas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haracter education provided by school. The mothers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teachers and schools of their children. As policy implications, providing regular parent education, activating parent-teacher associations, and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through support from the community are suggested.

▲주요어(Key Words) :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 주 저 자 : 이승미 (E-mail : smlee21@hanmail.net)

** 교신저자 : 장영은 (E-mail : yechang@cau.ac.kr)

I. 서론

인성교육(人性教育, character education)이란,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를 정서교육, 가치교육, 그리고 도덕교육의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남궁달화, 1999). 정서교육이란 정서의 이해와 표현을 의미하고, 가치교육은 인, 의, 예, 지 등의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따라야 하는 규범과 원리, 법칙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개방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들어서 여러 사회 문제와 연관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교는 지식과 성과 위주의 교육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에서 도덕교과를 교육시키고는 있으나, 아동들 간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자살 등 적응적 문제 발생은 점점 그 빈도를 더해 가고 있어, 학교 교육 내에서 자존감감, 타인에 대한 배려, 도덕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염려가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이러한 극단적인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겪게 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이끌고 안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강남구 보육정보센터, 2008). Tillman(2000)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유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 친절한 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가 되는 친사회적 능력, 공감능력, 정서 지능, 자기 정서 이해와 조절 등의 발달은 유아기부터 적절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오세화, 이소은, 2002; 이세나, 이영석, 2000). 즉, 이러한 습관의 형성은 당연히 생애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덕적 개념이 발달되는 영유아기부터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야 하며, 공교육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보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 초등 저학년을 걸쳐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미국 교육부는 부모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성교육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

각 요소의 성장을 위한 양육방법과 대화법을 정리하여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내에 기본생활 습관, 사회성 발달 등의 항목을 기초로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의 내용이 담겨있는 교육안의 예시가 구성되어 전달되며,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어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다(강남구 보육정보센터, 2008; 지성애, 2010). 하지만 초·중·고교 공식적인 교육과정 내에서는 인성교육의 임시방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안책으로써 특정 교과(사회, 도덕, 실과 또는 가정·기술)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의 효율성은 제대로 검증되거나 평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육과정 및 유아교육에서 개발된 인성교육의 내용이 초등교육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정책적 대안의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가족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공유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가정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전통 가족이 수행했던 다기능이 사회화됨에 따라, 자녀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일차적 교육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에 현재의 부모들은 부모역량이 약화되면서 자녀 인성교육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왕석순, 2004). Berkowitz(2005)는 인성교육은 학교가 실시해야 할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그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조기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아교육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부모가 인지하는 인성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에 기대하는 인성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체감도와 학부모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도의 파악은 학교시스템과 지역사회 서비스, 그리고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내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효과에 관한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학교의 연계성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파악해보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그리고 보육교사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의 연구문제에 따라 유아·초등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요구도를 파악하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을 개선·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현행 인성교육에 관해 학부모들의 지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내의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정-학교 연계를 통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탐색을 통하여 현행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학교와 가정이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통해서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성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김용일 등, 2008). 이러한 인성교육이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필요성, 내용, 효과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김영옥(2007)은 인성교육의 내용에 관해 자아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적 인성으로,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사회적 인성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덕목인 도덕적 인성으로 분류하였다. 유아의 기초적 인성은 개인생활 습관, 공동생활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적 인성은 자아개념(신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대인관계(감수성, 의사소통, 절충과 협력), 주도성(설득력, 성취동기)을 포함하였다.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동기, 판단력, 행동을 포함하였다. 이돈희(2002)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경로효친영역, 정직, 절제, 근면과 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과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 의식, 환경보호, 성윤리, 정보윤리로 영역을 나누었다. 앞에서 나눈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루었다.

미국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인성덕목은 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과 정의, 배려, 시민의식,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은 연령별 인성교육으로 유치원-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차등화하고 있다. 그 차등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신용,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과 정의, 배려, 시민의식,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인성교육은 대학에서 인성교육 연구소와 일반 연구소가 종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미국 인성교육의 특징은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인성에 대한 정의적 접근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안병희, 2005).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방법에 관해 살펴보면, 한국의 인성교육 교수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규칙, 표어, 서약문 학습, 독서 등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접적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있다(김용일 등, 2008). 미국의 인성교육 방법은 학교교육 전반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협동과 협력을 요하는 교육방식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 등 실천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인성교육의 방법은 교과과정에서의 반영과 수업을 통한 방법, 학급을 위주로 한 생활지도를 통한 방법, HR 활동, 특기와 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 캠페인 등 학교 전체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안병희, 2005).

2. 초등학교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내용과 평가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주로하는 도구적 지식교육 일변도이다. 학급이 올라갈수록 도덕적 행동 경향성이 감소하는 도덕적 행동발달의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지적 성장과 선악을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이라 보았을 때 인성교육은 후자이다.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아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더불어 살기 위한 인성교육(도덕교과)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에서 자아실현은 '나를 실제로 이루는 것' 또는 '나를 실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인간됨 또는 나의 인간다움을 말하며 인간다움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반면 가치관 교육은 교사가 아동이나 학생이 건전하지 못한 가치에 선호를 두는 관점으로부터 건전한 가치에 선호를 두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교사가 아동이나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교육을 하는 것이다(남궁달화, 2003).

더불어 살기 위한 인성교육(도덕교과)에서 도덕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덕교육은 도덕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의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 도덕적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 책임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남궁달화, 2003). 인성교육이 학생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으로서 인간다움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도덕교육 도덕교육은 인성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허승희, 1998). 허승희(1998)는 Brooks와 Kahn(1993)의 효과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11요인들 중 7가지 요인을 준거로 초등학교 교과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7가지 요인은 인성의 개념정의의 명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성의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행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있는지의 여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하여 부모들과 연계된 활동의 계획여부, 아동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전체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는가의 여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융통성있게 계획되었는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 사전평가, 진행 중의 평가 및 실행 후의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기의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된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평가하였다. 인성의 주요요소들은 자아확립, 공동체 의식, 효도, 경애 및 기본생활습관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인성의 요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학년별 수준에 따라 구조화되지 못했다. 교사와 부모가 지향하는 인성교육 내용은 유사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가족신문 만들기, 보조교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와 연계하였다. 대부분 집단지도하에 시행되어 아동 주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수업시간의 교육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족했고 인성교육 대상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의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전, 사후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방식도 주관적 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는 인성교육의 개념이나 요소를 중심으로 집중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방식의 현황이나 문제점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없고, 인성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의 연계성을 밝히고, 우수사례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며, 교육자·학생·가정의 입장에서 인성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학교현장과 가정에서 인지하는 인성교육의 효율성과 문제점, 요구도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유아교사, 보육교사, 그리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집단심층면접(FGI)을 위해서 먼저 국내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인성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인성교육 사례를 문헌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심층분석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현재 유아 및 초등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쟁점 영역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자 및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교사에게 질문할 문항을 구성하였다(질문내용은 부록 참조).

집단심층면접을 위해 학부모 집단은 유치원생 학부모 1집단, 초등학교 학부모 3집단 각각 4~5명씩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심층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인성교육에 관해 선행준비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개방형 질문을 하고 답변과 다양한 논의를 들었다. 피면접자들의 응답은 사전 양해 하에 녹취하였으며, 면접 후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이를 연구자들이 이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법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인성교육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기본적인 도덕성과 가치의 붕괴, 성취 위주의 교육현실에 관한 어려움, 인성교육을 위한 정보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이를 중심으로 면접결과를 정리하였다. 즉, 학부모가 지각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문제점, 학교 내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 그리고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학부모 의견의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14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관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피면접자인 학부모의 연령분포는 34세에서부터 41세까지였으며 유치원 학부모들은 34세에서 36세까지였고, 학력수준은 대학졸업이 11명, 대학원 졸업자가 3명이었다. 자녀수는 1인인 피면접자가 4명, 나머지 10명의 학부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집단심층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면접자인 학부모의 대부분은 대졸 이상의 중산층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 1> 집단심층면접 대상 학부모의 특성

대상자	자녀학력	연령(세)	학력	자녀수(명)	가족형태
초1	초등학교	36	대졸	1	부부+자녀
초2	초등학교	34	대졸	1	부부+자녀
초3	초등학교	38	대졸	2	부부+자녀
초4	초등학교	36	대졸	2	부부+자녀
초5	초등학교	39	대졸	2	부부+자녀
초6	초등학교	38	대졸	2	부부+자녀
초7	초등학교	37	대졸	1	부부+자녀
초8	초등학교	35	대졸	2	부부+자녀
초9	초등학교	41	대졸	2	부부+자녀
유1	유치원	34	대졸	2	부부+자녀
유2	유치원	36	석사 졸	1	부부+자녀
유3	유치원	34	대졸	2	부부+자녀
유4	유치원	35	석사 졸	2	부부+자녀
유5	유치원	34	석사 졸	2	부부+자녀

IV. 연구결과

1) 학부모가 느끼는 인성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

(1) 인성교육의 부재: “수학 점수는 이야기해주셔도, 아이 인성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셔요.”

면접에 임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성교육에 관해 개략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었다.

“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엄마도 자기 아이에게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문제나 얘기를 막상 상담해 올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인성교육 감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말인지 정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나에 대한 질문이 막연한거야...” “그냥 단체생활에 있어서의 규칙, ... 통제를 위한 규칙을 가르치는데 정확히 이것이 인성교육인지 어느 일정 부분에 교집합이 있긴 하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초 4)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내 인성교육 실시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낮음을 표현하였다. 즉,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인식이 낮았으며, 혹은 실시한다고 해도 학교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효과가 없고, 학부모와 교사와의 연계성

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자체가 학습 중심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며, 학교구조 자체가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학교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와의 연계성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죠”(초 3)

“선생님과 상담하면 대부분 수학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가정교육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셔요.”(초 3)

“1학년 때는 조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질서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유치원 때는 진짜 인사도 잘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라져서...”(초 7)

부모들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나 교사와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고,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아이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학교와 가정이 소통하는 방식의 인성교육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아이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고

학부모가 문제해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는 것도 인성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이런 걸루 전화해도 되는 건지. 라든지 아니면 괜히 전화해서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어쩌지...”(유 5)

“애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고쳐주기를 저는 상황에 엄마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해 주셨으면...”(초 3)

(2) 절제, 존중 등의 가치교육의 필요성: “절제가 가장 부족해요”

학부모들에게 자녀와 같은 연령대 아동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이기심과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점, 낮은 자존감, 절제나 인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배려심, 존중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제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당연 문제예요... 또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출해야 하는데 그럴 대상이 없어서 불안해 하지요.”(초 2)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길러질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공부 못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사이버상에서 욕하고 악플도 달고...”(초 3)

“...절제가 제일 어려워요.놀이터에서 놀 때 물병에 물을 담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는데 덩치 큰 9-10살 된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들고 이를 보던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가니까 다시 줄을 세우고...”(유 3)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약자가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재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유 3)

“아이가 하나이면서 큰 문제가 진짜 배려심이 없어요. 애가 그게 너무 느껴지는데...동생이 없어서인지 친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정말...(죄책감이 든다고 함)”(초 8)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 한 것이 가치관이고 그래서 존중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빠는 일하시느라, 어머니는 집안일로 바쁘셔서 저희는 사회성은 굉장

히 발달한 것 같지만, 존중 같은 거를 참 못 받은 거 같아요”(초 6)

(3) 과도한 성취지향의 양육 및 교육환경: “수학 잘 하는 아이가 인성이 바른 아이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학교가 지향하는 성과주의적 현실과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가정 내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싸우지 않고 양보해라. 라고 하지만 막상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당하고 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게 되요...”“인성이 아니라 경쟁관계에서 친구를 보면서 개가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게 되요.”(초 3)

또한 인성교육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성이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등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가 일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 왕따 방지 공문도가정통신문이면 그만이에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담임 선생님들은 부모가 아이문제를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해요...”(초 3)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제공하는 규칙은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지키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규칙 준수 방법 역시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교육이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 학교에서 막 누르는데 엄마들도 인사해라, 손 씻어라... 계속 지시만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나한테는 자유가 없어. 학교는 재미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요”(유 4)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지식전달이나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아이들 교우관계나 행동에 대한 관심과 지도는 매우 미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교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방관자적인 자세를 갖거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체적이거나 교육적인 방법이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호소하였다.

(4) 학부모 스스로의 인성교육의 기준 부재: “착한게 밥 먹여 주나..”

학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학업성적 중심의 사고와 객관적 잣대로 보는 성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혼돈된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부모 스스로 인성이 훌륭한 자녀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인터뷰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요...요즈음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이 있는 것 같아요. 니가 잘 되어야 해. 친구 소용없어. 착한게 밥먹여 주나. 독해야 살아남아...”(초 4)

“... 잘 잡아주었던 생활습관이 무너지고, 엄마 마음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 아주 큰 잘못이 아니면 눈 살짝 감아주게 되요”(유 5)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하는 생각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치원 때는 매우 에너지 넘치고 밝았는데 지금은 얼굴 인상이 수만가지예요...”(초 5)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통해 공교육 체제로 자녀를 유입시키면서 유아교육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양육의 주안점이 되는 영역도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학부모의 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인성의 여러 요소에 대한 혼란감을 경험하게 하고, 발달적으로 도덕성 및 사회성 성장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인성교육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유치원에서 중요한거랑 학교에서 중요한거랑. 유치원 때 중요했던 것들이 학교가면 무시당하니깐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유 2)

또한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방법은 결국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겠어요.”(유 4)

“... 엄마가 자기애는 절대 그랬을 거 아니다. 그리고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감이 없어요...”(초 5, 6)

부모들 스스로 올바른 양육지식과 태도를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녀가 건강한 인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면접자 중에서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처한 문제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양식을 자녀에게 교육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나 학교 또는 자녀의 문제보다는 부모들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반성하기도 하였다.

“저희 애 아빠는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린 사건을 뒤늦게 알고 ... 숨긴 아이들을 파출소에 신고해라, 한달 동안 을 아이에게 돌로 때려라, 물병으로 때려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유4)

“선생님이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부모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학교를 혼드는 엄마들이 많아요...1시까지 수업인데 12시 40분만 되면 집에 갈 수 해달라고 하고, 자기 스케줄을 다 짜두고...”(초9)

2)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내 인성교육에 관한 의견

(1) 유치원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 때 잘 했다가 초등학교 때 다 무너지죠.”

연구대상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비교적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기본생활 습관 교육도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는 관리해야 할 아동수가 너무 많고, 통제수단으로 규칙만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 수준이 높았던 반면, 유아기관의 경우 교사와 학생비율이 적절하여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아이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 유치원 때는 아래도 인성교육 쪽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초 1)

“유치원은 6, 7세 때 거의 10-11명의 아이들을 돌보니까 선생님이 1:1 관리가 가능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32-33명 정도를 1명의 선생님이 관리하니까 큰 소리 내고, 쉬는 시간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유 4)

(2)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기대: “저학년 인성교육은 선생님 재량이 80% 아닌가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는 주체가 교사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인성교육 역시 그들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이 다른 교과교육과는 달리 교사의 개인성향과 역량에 좌우되는 점이 인성교육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성향과 의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에 대한 기대와 영향력은 유아를 키우는 부모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교에서의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역량이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교사교육이 인성교육의 활성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학년이었을 때 인성교육은 거의 80% 이상이 선생님 개인의 재량이나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좌우되는 것 아닌가요?” ... “아이들은 가정 외 생활 대부분이 학교인데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되지요” ... “선생님이 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 제가(엄마) 말하는 것보다 느낌이 훨씬 커요”(초 4)

“아이들이 어떤 담임을 만나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지요.”(초 3)

“.... 선생님이 원칙주의자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해요. 반대로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경우나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달라요...”(유 5)

“요즘 선생님들은 권위도 없고 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른 것을 아이들을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건 선생님 능력이잖아요...”(유 4)

(3) 교사인성교육 및 상담교사 배치: “아이도 저도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가 학교의 교사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담교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상담교사의 역할과 그 효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접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가진 문제를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근하는 상담교사의 역할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선생님도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선생님이 자체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가 TV에서

애들이 아무 때나 가사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가 중학교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좋은 제도 같아요. 아이들 자살이나 이런걸 막을 수 있고...”(초5)

또, 학업스트레스로 공격적인 아이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성향을 잘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아이 성향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없어서 인성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쉬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초5)

3) 효율적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방안

(1)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건강검진 하듯이 부모교육도 해주면 좋겠어요”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부모교육의 내용이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상황별 대처법 등의 구체적인 양육방법이나 발달적 특징을 다루기를 희망하였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표현하였다.

“...학교에서 하는 제대로 된 부모교육을 해서 아이를 잘 기르는 tip 같은 것을 주면 좋겠어요...”, “.. 특히 칭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바른 칭찬법... 이런 것을 부모교육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초 3)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영유아건강검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알지만 한번 더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겠어요”(초 4)

“부모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정기적으로 해서 강제성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영역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초 3)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부모가 변해야 하고, 그 유치원 애들 저희에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 보니까...”(유 5)

“... 국가에서 3시간 4시간 씩 임산부에 대해서 태아교육, 예비부모교육 하잖아요.... 그런것처럼 부모로서 무료로 하는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초 9)

피면접자 중에는 자신이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느껴 부모상담과 부모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상담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역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부모교육이 자녀를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과도기이고 질풍노도인 갈등 때문에 부모상담도 받고 부모교육도 받았어요.... 부모교육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론을 들으면서 제 생활에 도움이 많아 됩니다.”(초 5)

(2) 인성교육의 올바른 시행: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는 인성 시험이 있었으면 해요.”

면접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착한어린이상, 칭찬스티커 등의 제도가 활용이 잘못되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였고, 이들 제도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올바르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착한 어린이상을 기본학습이나 기본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나 남을 배려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 임원이나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주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초 3)

따라서 이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수상과정 전반에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학교에서 주는 상에 대한 기준과 그 평가를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가 많고, 학부모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초 3)

또한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도덕시험처럼 옛날에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와 같은 인성인증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초 1)

“칭찬 일기 같은 거. 일주일에 한번은 자기가 잘한 일을 쓰기라든가 등을 초등교육에서부터 하면 좋을 듯 해요.”(초 4)

(3)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재 및 교육방법 개발: “단막극 같은 건 어떨까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공감하는 단막극, 비디오 감상 등을 통해서 왕따나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생각해보고, 동조해 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금은 교정이 될텐데 ...”(유 5)

“재량시간 내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아이들 상담시간을 만들어서 심리상담도 하고 아이들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초 3)

(4) 가정과 학교의 상호신뢰 회복과 역할공유: “부모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찾아야죠.”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다 체크할 수 없어요 너무 업무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해요..... 또,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품앗이로 해서 인성교육을 나누면 좋을 듯 해요”(초 3)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모들이 절감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도가 성숙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집에서의 인성교육은 제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내가 아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말을 하면 아이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다른 지침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가....”(초 7)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뷰한 학부모들은 자신들도 학교에 대한 신뢰가 낮고 교사 역시 그럴 것이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교사들이 자녀 인성교육 하고 있고 학부모가 안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학교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할

듯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점도 학교와 함께 개선해야하지 않나요?"(초 4)

"...학교에 대한 신뢰가 부모들이 있으면, 학교 가있는 동안은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실거라는 믿음..."(유 2)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올바른 인성을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의 인성교육에 대한 공적, 사적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자녀문제에 대한 학교교육이나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을 양적연구로 진행하였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로 인성교육을 접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학령전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정-지역사회-학교가 동시에 아동의 인성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도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특히 성과위주의 학교 현실과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호소하며 정기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에 더하여 학부모들은 학교, 특히 교사와의 허물없는 소통을 매우 원하고 있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는 학교나 교사에게, 교사는 가정, 즉 학부모에게 인성교육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공통된 지적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Berkowitz(2005)는 성공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참여의 방식으로 첫째, 정보수혜자(information Recipients)의 방법, 즉 홈페이지, 이메일, 통신문 등을 통한 정보를 받아보는 가장 소극적인 수준의 참여, 둘째, 파트너(partner)로서의 참여, 즉 부모가 가정에서의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부모의 밤 등의 행사를 여는 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Client)으로서의 참여를 제안하여 구체적인 주제(집단 따돌림, 훈육방법, 위험 행동 등)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하고 시청각 자료 및 토론 세션 등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학교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일차적 환경으로서, 특히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문제 아동은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지적에서처럼,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인성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기본이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녀 양육시 인성적이 측면에서 교육하고 훈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부모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부모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도 부모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부모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부모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이수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더 나아가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전환기, 즉 초·중·고 입학 시 자녀와 함께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학교와 가정이 상호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더불어 최소한의 부모교육 이수자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모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확대방안도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부모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뿐 아니라 가정, 즉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부모교육의 내실화, 학부모회의 활성화 역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을 전국의 센터에서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버지교육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동작구 센터의 경우 동작구 내 18개의 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방문교육도 시행되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시행되는 학부모교육이 학교운영상의 여러 제약 조건-운영시간, 장소, 부모교육 강사 등으로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교의 부모교육을 위탁,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부모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부모센터를 통해 자녀연령별로 부모가 필요로 할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호주 역시 「부모역할 웹센터」(raising-children.net.au/)에 자녀 연령별 부모역할이 안내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 정보 및 전문가의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부모센터와 비교해볼 때 호주의 부모역할지원 센터 메뉴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를 임신, 출산하기 전에 성인 남녀가 건전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가사업무, 일·가정양립의 문제 등을 첫 메뉴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자녀를 키우다가 겪을 수 있는 별거, 이혼에 따른 분리 문제 등 아동의 안전한 환경으로서 가족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범주가 보다 포괄적이다. 이러한 영국 및 호주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여 부모역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역할웹센터(가칭)를 구성,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그러하다. 이 센터는 현재 다양한 공적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 부모역할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자녀의 연령별로 재구성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부모 개인, 학교 교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간의 연계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기존제도인 학부모회의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교육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경감하겠다는 필요성 하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라는 비전을 수립하고(김경애, 2010),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부

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작성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2,000여개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회 활동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학부모도 주체로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특히 우리가 만난 학부모들은 학교의 문턱이 높고 멀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학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아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학부모와의 직접 면접형태를 통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연구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어 있으며 면접대상 학부모들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 다문화가족의 부모, 그리고 아버지 등 가족 내 인성교육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다 풍부한 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남구보육정보센터(2008). 유아 기본생활지도 프로그램. 서울: 강남구보육정보센터.
- 강정미(2003).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2).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교(2003). 가정과 교사 특성지각과 인성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중학교 가정과 수업에 기초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옥·송혜린·김현미(2007). 21세기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김영옥·장명림·유희정(2009).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4(5), 297-324.
- 남궁달화(2003).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한국실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1-28.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청소년 인성교육의 실제: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안병희(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연구. 인문과학연구, 13, 133-169.
- 오세화·이소은(2002). 친사회적 행동 증진활동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도덕추론. 미래유아교육학회

- 지, **9(2)**, 213-237.
- 왕석순(2004). 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2)**, 13-26.
- 이돈휘(2002). 도덕성 회복과 교육. *교육과학사*.
- 이병석(2009). 인지·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49-270.
- 이세나·이영석(2000).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2)**, 147-156.
- 정미경(2003). 실과 가정과 영역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3)**, 141-161.
- 지성애(2010).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실태 비교. *유아교육연구*, **30(2)**, 283-308.
- 허승희(1998). 초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분석. *초등교육연구*, **12(1)**, 67-86
- Berkowitz, M. (2005).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s partners. *Educational Leadership*, **63(1)**, 64-69.
- Berkowitz, M. W. & Bier, M. C. (2007).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5(1)**. ProQuest Education Journals.
- Brooks, B.D. & Kahn, M. E. (1993). What mak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work? *Educational Leadership*, **51(3)**, 19-21.
-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09). *Schools, Families,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et al.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Y: Bantam Book
- Lickona. T. (1993). *Ten Return of Character Education*.
- Tillman, D. (2000). *Living Values Activities for children ages 8-13*. Deerfield, FL: HCI.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Helping Your Child Become a Responsible Citizen*.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Outreach. Washington, D.C.

- 접수 일 : 2011년 04월 10일
- 심사 일 : 2011년 06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2일

<부록> 집단심층면접 질문내용

1. 인성교육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① 기본생활습관	②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교육	③ 긍정적 사고 및 가치관 정립
④ 도덕성 함양	⑤ 생명존중 및 인간존중	⑥ 봉사정신 함양
⑦ 배려심		

3.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성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정도?

4. 어떤 부분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에 인성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6. 인성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 유치원 때에 비해서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차이점을 느끼는지? (초등학교만 해당)

8.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초등학교만 해당)